

주장자 따라...

12 고봉 스님의 '나귀삯'



조태호



고봉 스님(1901~1969): 황해도 장연 생. 25세에 서울 대각사에서 용성 스님에게 출가. 망월사에서 만일결사정진. 제방선원서 정진후 경전공부, 통도사·해인사 등서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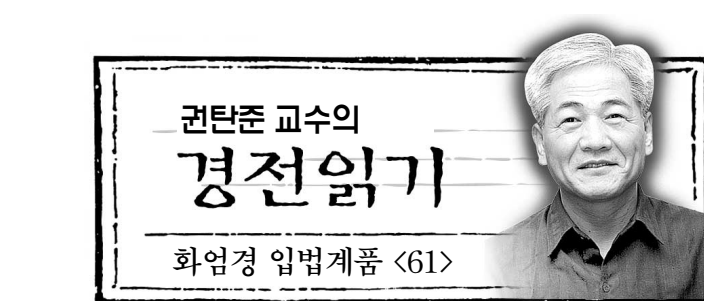
마야부인의 가르침에 따라 선재동자가 찾아가는 선지식은 천주광녀(天主光女)다.

그녀는 33천(天)의 정념(正念)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다. 왕의 명칭이 '정념'인 것은 커다란 지혜의 작용이 아무런 조각될도 없이 자재한 것이 천왕과 같음을 나타내고, 그의 딸의 명칭이 '천주광'인 것은 지혜의 작용이 생사의 속에서 자재하게 자비로운 신통 조화를 일으키는 것을 나타낸다.

선재동자가 천궁에 가서 그녀를 보고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뒤는 법을 묻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결립 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이다. 나는 이 해탈의 힘으로 지난간 세상을 기억한다. 과거에 가장 훌륭한 겁이 있었으니 이름이 ‘푸른 연꽃’인데, 나는 그 겁에서 향하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여래께 공양하였다. 그 여래들이 처음 출가할 때부터 내가 받들어 수호하고 공양하였는데, 절을 짓고 모든 도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저 부처님들이 보살로서 어머니의 태에 계시 때와 탄생할 때와 일곱 걸음을 걸을 때와 크게 사자후할 때와 동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궁중에 계시 때와 보리수를 향하여 정각을 이룰 때와 바른 법문을 풀리며 부처님의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시킬 때에 여러가지 하신 일을, 처음 발심한 적부터 법이 다할 때까지를 내가 다 밝게 기억하여 있는 것이 없으며, 항상 앞에 나타나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 외에도 선지검(善地劫) 모덕검(妙德劫) 무소득검(無所得劫) 선광검(善光劫) 무량광명검(無量光明劫) 등에서 미진수



권관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61>

천주광녀의 법문

부처님 일 일념으로 파악하여 드러내

깨끗한 마음에 의한 기억은 여래의 경계

각의 깨끗한 장엄 법문은 기억(憶念)에 의해 여래를 분명하게 나타내게 하는 법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녀가 이 법문을 얻은 것은 무수한 겁 동안 모두 부처님 여래를 공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립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의 경계란 과연 어떠한 경계일까.

결립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밝은 지혜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아무런 장애가 없이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녀가 깨끗한 마음에 비추어 내어서 기억하는 것은 무량 무수한 부처님 여래의 경계다. 부처님의 훌륭한 경계를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장엄이라고 하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지혜와 복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엄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녀가 선재동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 무수한 세상에서 모두 부처님들이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자비로써 중생을 이롭게 하신던 모든 일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생각해서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경문에서 ‘깨끗한 생각의 장엄해탈을 성취함으로써 과거 일체의 보살의 행을 기억해서 잊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은 모든 불보살의 공덕의 능력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망념(妄念)이 없는 정념(正念)의 지혜는 결립이 없는 지혜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일을 일념(一念) 속에 분명히 파악하여 드러내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천주광녀가 “부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내가 깨끗한 장엄해탈의 힘으로 모두 기억하여 분명히 앞에 나타나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천주광녀가 설하고 있는 ‘결립없는 생

각의 깨끗한 장엄 법문은 기억(憶念)에 의해 여래를 분명하게 나타내게 하는 법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녀가 이 법문을 얻은 것은 무수한 겁 동안 모두 부처님 여래를 공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립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의 경계란 과연 어떠한 경계일까.

결립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밝은 지혜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아무런 장애가 없이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녀가 깨끗한 마음에 비추어 내어서 기억하는 것은 무량 무수한 부처님 여래의 경계다. 부처님의 훌륭한 경계를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장엄이라고 하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지혜와 복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엄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녀가 선재동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 무수한 세상에서 모두 부처님들이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자비로써 중생을 이롭게 하신던 모든 일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생각해서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경문에서 ‘깨끗한 생각의 장엄해탈을 성취함으로써 과거 일체의 보살의 행을 기억해서 잊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은 모든 불보살의 공덕의 능력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망념(妄念)이 없는 정념(正念)의 지혜는 결립이 없는 지혜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일을 일념(一念) 속에 분명히 파악하여 드러내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천주광녀가 “부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내가 깨끗한 장엄해탈의 힘으로 모두 기억하여 분명히 앞에 나타나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천주광녀가 설하고 있는 ‘결립없는 생

각의 깨끗한 장엄 법문은 기억(憶念)에 의해 여래를 분명하게 나타내게 하는 법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녀가 이 법문을 얻은 것은 무수한 겁 동안 모두 부처님 여래를 공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립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의 경계란 과연 어떠한 경계일까.

결립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밝은 지혜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아무런 장애가 없이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녀가 깨끗한 마음에 비추어 내어서 기억하는 것은 무량 무수한 부처님 여래의 경계다. 부처님의 훌륭한 경계를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장엄이라고 하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지혜와 복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엄이라고 할 수 있

네티즌 교리문답

“견성=성불, 맞나요?”

문 선종에서는 견성 즉 성불(見性即成佛)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요? 어떤 분들은 견성한 조사스님들은 아라한과 같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최초의 아라한’이라 하지만, 조사스님들은 부처님과 같은 공덕과 위신력은 갖추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D '부처님')

답1: 일단 부처라는 상에 이끌리고 있는 이 마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견성도 부처라는 상처럼 허망한 것이지요.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견성인데, 6신통을 구족했으면 부처요 깨끗어도 6신통이 없어서 생과 사에 지체하지 못하면 단지 견성한 도인일뿐 부처의 지위는 아니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밖으로 무수한 이름들에 이끌릴 뿐 그전에 뒤돌아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D '아베중생')

답2: 원불교 정산 종사의 말씀에 이와 관련한 글이 보이네요. “모름지기 견성하는 것이 도(道) 공부의 전부가 아니다. 사람은 어려서서 ‘견성즉성불’이라 하여 견성이 성불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아는데 모르는 소리다. 내가 우주인 줄 알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지만 사람은 업(業)이 두껍기에 이걸 청산하지 않으면 진실로 부처가 되지 못한다. 사실 무엇을 본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지 몸으로 나타내는 것, 지행일치가 중요하다.” (D '부디만')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35

불립문자(不立文字)-8

우주 만유를 다 포용하고 수렴하는 어떤 하나의 궁극적인 원리, 진리를 천명한 것이 고전사상과 고전종교 태두들의 공통점이라고 하였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그 궁극적인 원리를 개개인이 내면화할 것을 강조했다는 데 있다. 적어도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스스로 세상만사의 궁극적인 원리를 체득하고 내면화하여 그에 부합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것은 그 이전의 이른바 원시종교나 고대문명의 종교와 비교해보면 매우 혁명적인 변화였다. 원시 고대의 종교적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에는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과 사람의 의지로 어찌하지 못하는 힘이 온갖 곳에 잔존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존재를 학술적으로 용어로는 정령(精靈)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의 용어로는 천지신명이나 신령이나 하는 것과도 같은 잡귀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존재에도 중요한 것이 있고 좀 덜 중요한 것도 있다. 중요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세상의 일,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끼치는 영향력이 크고 힘이 센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원시나 고대 종교에서는 그런 존재와 힘을 잘 이용하거나 잘 달래서 사람에게 유리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고전종교에서는 모든 문제가 그런 바깥의 존재와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더 궁극적인 세상의 진상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개개인이 그 궁극적인 진상을 모르고 이에 어긋나게 사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

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개개인이 세상 전체의 궁극적인 진상을 깨닫고 체득하여 그에 부합되게 사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전종교에서는 모든 문제와 해결이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원시나 고대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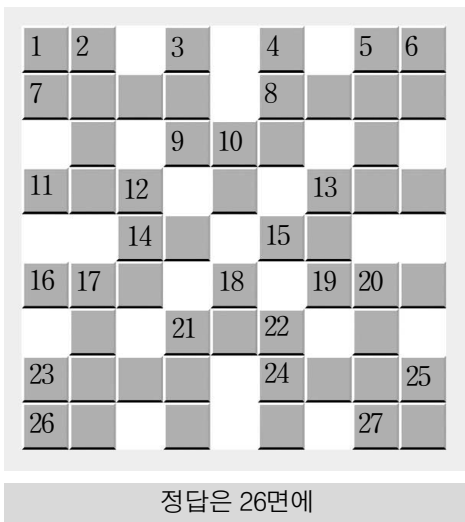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고전문화의 태동은 문자문화의 태동과 시기와 현상을 같이 한다. 그리고 고전 사상과 종교의 태두들은 문자문화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여겼다. 문자는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 진상을 내면화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만사 전체를 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앞의 글에서도 말했듯이 이데일리 불이적(不二)의 원리이다. 각양각색의 현상과 사물을

를 각자 낱말이 쪼개진 채로, 즉 물적(即物的)으로 인지하는 데 고치지 않고, 그 모두가 하나로 수렴되

는 통합성을 깨닫고 내면화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고전 사상이요 종교인데, 간단히 보니까 문자문화는 통합성의 지각과 내면화에 장애가 되더라는 것이다. 이에 관해 윌터 옌은 시각과 청각의 차이를 거론한다. 말은 청각적이고 같은 시각적인

시각은 똑똑 나는 감각임에 반해서 소리는 통합하는 감각이다. 시각은 분리하고 통합하는 합체시킨다. 시각의 전형적인 이상은 명확성과 명료성, 즉 나누어 보는 일인데 반해서 청각의 이상은 하나로, 즉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내면성과 하모니는 이미 인간 의식의 특징인데, 글이라는 시각적인 장치는 의식을 분절화(分節化)시키고 타자화(他者化)해서 내면성과 통합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정답은 26면에

상식퍼즐

가로

1. 많이 내린 눈 5. 원줄기에서 갈라져 뻗은 줄기 7. 시다르타가 동서남북 성문을 나와 생사병통을 제형 출가를 결심한 일 8.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 9. 적으로 여기는 마음 11.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 내는 사람'을 비유한 말 13.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법 14. 두 가량이 가진 한복의 아랫도리 끝 15. 가지고 있을 16.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19. 화장을 놓아 두고 화장을 하는 가구 21.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곳 23. 속마신 운전자를 단속하는 행위 24. 사회 여러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기관이나 조직, 체제 26. 남을 해지려는 마음 27. 가구 등에 발라 윤나게 하는 무명한 칠.

세로

1. 자주 중요하고 큰 일 2. 어떤 상황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것 3.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앞날에 희망이 없는 것 4.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5. 덕하기 6. 빠기 7. 곱하기 8. 나누기 9. 어울리 10. 는 말 6. 분사에서 갈라져 나가 일정 지역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업체 10. 어른 13. 국가 소유로 함 17.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하는 주의 18. 불교의 진배 20.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곳 21. 법률 22. 법률 23. 조약 등에 의하여 자유로운 행동을 구속하는 효력 22. 몸의 표면이 나사 모양으로 흠이 진 못 23.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주로 악음(樂音)을 소재로 하여 나타내는 예술 25. 거대한 식인 백상악과 인간들 간의 목숨을 건 대결을 그린 영화.

'주장자 따라...' buddhanews.com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